국내
마감시황

2026.1.16.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삼성전자가 이끈 코스피

TSMC 호실적과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삼성전자 강세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로 코스피 11거래일 연속 상승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4,840.74pt (+0.90%)	954.59pt (+0.36%)	704.64pt (+1.18%)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2.40 원 (+3.2 원)	3.5060% (+1.3bp)	7,002.00pt (+0.29%)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9,379 억	+570 억	+1,575 억
외국인	+4,063 억	-857 억	-9,054 억
기관	+3,386 억	+379 억	+7,299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올해 전 거래일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의 11거래일 연속 상승은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입니다. 특히 전일 TSMC가 실적 호조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바이오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90%, KOSDAQ은 0.36% 올랐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6.6조원, KOSDAQ은 약 14.2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KOSPI에서 기계/장비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 장비/부품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6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전기/전자와 운송/창고 업종을 매수했고, IT 서비스와 운송 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조 단위 기술 수출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상승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에 금융주가 올랐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 전망이 지속되면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최근 강세였던 자동차, 조선, 방산 업종 등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습니다. 그 외, 로봇, 2차전지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알테오젠(+10.10%), 두산에너빌리티(+6.48%), 삼성전자(+3.47%)가 올랐고, 레인보우로보틱스(-5.01%), 현대차(-2.13%), 한화오션(-1.28%)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